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하 상 희 · 정 혜 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Relationship of Irrational Belief and Marital Satisfaction of Newly Married Couples

Sang-Hee Ha · Hye-Jeong Chung*

College of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spouses and the relationship of irrational belief and marital satisfaction of newly married coup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21 pairs of newly married couples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Results of paired t-tests showed that the degrees of irrational belief of wive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ir husbands, and that wives' marital satisfaction were lower than their husbands'. Correlational analyses indicated that irrational belief of both husbands and wiv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of them,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marital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e differences in irrational belief between spouse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the family life education for newly married couples and/or premarital couples.

KEY WORD : irrational belief, marital satisfaction, newly married couples

[†]Corresponding author : College of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561-756, Korea
Tel : 063-270-3828, Fax : 063-270-3839
E-mail : chunghj@moak.chonbuk.ac.kr

I. 서 론

1. 문제 제기

성인의 남녀는 이성교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원하는 선택이 이루어지면 결혼에 이르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혼이란 그 형식과 절차를 달리한다 해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인생의 한 부분이다(이정덕, 김경신, 문혜숙, 송현애, 김일명, 1998). 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결혼의 형태도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적 결혼에서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해 배우자를 결정하는 우애적 결혼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부부관계의 의미는 가문의 계승과 단합보다는 개인의 정서적 만족과 행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혼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가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애적 결혼 형태에서의 이성교제 기간은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성격, 삶의 태도나 이상 등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의미나 결혼의 실체에 대해 모르는 채로 결혼하여 가족 생활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결혼 당사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결혼을 준비하기보다는 '결혼식'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결혼식 뒤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 생활이나 최소한의 행복이 있을 뿐이라고 극단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유영주, 이정연, 오윤자, 1999).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크고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비현실적일수록 결혼 후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부부는 상호간에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결혼 생활에서의 정서적 만족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심각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허윤정, 1997). 결혼 만족은 결혼 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정도이므로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 기대치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에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이다(Bownan, 1970 재인용). 또한 Ort(1950)는 결혼에 대한 만족이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그 배우자의 실제 행동 사이의 '상호일치(mutual fit)'에 관련되어 있

다고 가정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부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가치관, 규범, 사회적 태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 만족을 저해하는 부부갈등의 인지적 원인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김정옥, 1995). 합리적 정서 치료(Rational-Emotive Therapy)에 따르면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부부가 자신과 배우자, 결혼 생활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나 신념을 갖는 경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Ellis, 1997). 이와 같이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신념은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비합리적인 기대와 신념이 강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느끼고 결국 불행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관계와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비합리적인 기대나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신수련, 1993).

결혼 초기의 부부는 이들이 평생 지속해 나갈 가족관계의 토대를 이루는 단계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 초기에 결혼생활적응에 곤란을 겪으며 그들 중 일부는 결국 적응에 실패하여 이혼에 이르기기도 한다. 통계청(1998)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혼 부부 중 28.5%가 결혼 5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 초기부터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결혼 초기로 시기를 제한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도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집단간의 결혼 만족 정도를 비교하는데 치중해 왔다(이상원,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초기의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 만족도와 결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들의 비합리적인 신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생활이나 배우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클수록 현실적인 결혼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부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의 차이가 클 때 결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권희완(1992)은 결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이 부부간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개념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결혼 만족도와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가족의 안정성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구성의 시초가 되는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비합리적인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결혼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신혼기 부부 뿐 아니라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

부부 관계는 서로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난 두 사람의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로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 관계로 수많은 상호관계에 있는 지위와 역할을 함유하는 상호 보완적이며 역동적인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김정옥, 1995). 두 남녀가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원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가치관이나 성역할 태도,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나 규범 등의 차이가 결혼 생활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Sager의 '결혼계약' 개념에 의하면 각 배우자는 서로 주고받는 이익에 관하여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관계에 대한 한 세트의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이 기대들을 서로 표현하지는 않는다(김정옥, 1995 재인용). Epstein과 Eidelson(1981)은 47쌍의 부부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커플들에게 자신에 관한 비합리적인 신념과 결혼관계에 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상관 관계에서 비합리적인 신념들은 전반적인 부부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Burr(1971)는 역할 기대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역할 기대와 역할 행동 사이의 불일치가 감소할수록 결혼 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신수련, 1993 재인용).

Grafton(1980)도 결혼 기대와 결혼 만족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결혼에 대한 기대와 결혼 만족과는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Ellis(1977)가 합리적-정서적 치료(Rational-Emotive Therapy)에서 부부 상호 작용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이나 상대방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결혼 그 자체에 관하여 가지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 자료가 된다. Ellis는 일반인들의 사고체계 속에 흔히 존재하는 개인적 장애에 작용하는 비합리적 신념들을 제시한 바 있다(윤순임 외, 1998).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주로 일반인들의 신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결혼한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Epstein과 Eidelson(1982)이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s)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신념을 사정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 불일치 영역(disagreement is destructive)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태도, 목표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의 발생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견의 차이를 사랑의 결핍 또는 이혼의 신호로 보는 비합리적 신념이다. Satir(1967)는 이러한 신념을 지닌 사람은 상대방을 강요하는 식의 대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과 결혼 부적응을 동일한 것으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수련, 1993). 둘째, 마음 알아주기 영역(mindreading is expected)은 상대방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진실로 서로를 알고 돌보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명백한 의사소통 없이도 상대방의 욕구와 선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실망, 오해, 그리고 갈등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Gottman, Nortarius, Gonso, Markman, 1976; Jacobson, Margolin: 1979; Lederer, Jackson, 1968). 셋째,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partners can not change)은 친밀한 배우자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 부부사이의 관계의 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으로 Hurvitz(1970)는 배우자는 변화할 수 없다는 이 가정을 좋아질 수 있는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

는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관계의 만족이 감소하기 쉽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Doherty, 1981). 넷째, 성적인 완벽주의에 대한 영역 (sexual perfectionism)은 배우자가 성관계에 있어서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러한 신념이 클수록 부부간의 성적 반응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감소시키게 된다(Epstein, Eidelson, 1982). 마지막으로 성고정관념 영역(Sexes are different)은 부부가 남녀의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욕구나 성격 특성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시킨다. Doherty(1981)는 개인간의 갈등조차 이런 원인으로 돌릴 경우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 증가하고 관계의 문제를 푸는데는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하위영역의 비합리적 신념 척도를 실제 신혼기 부부에게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

결혼 만족이란 개념은 학자들에 의해 결혼 적응, 결혼 안정성, 결혼 행복, 결혼의 질 등 여러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만족한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규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강희정, 1995). Rice(1979)는 결혼 만족도란 개인의 욕구가 남편, 아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완전하게 만족하는 부부는 없고 기대와 수행간에 항상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허윤정, 1997 재인용). Hawkins(1968)는 결혼 만족이란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 만족과 기쁨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로서 부부를 비롯한 가족간의 애정은 물론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및 자녀의 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및 사회적인 성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혼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강희정, 1995 재인용).

만족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개인이 맺게되는 인간적인 관계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 있으며 결혼 만족도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고현선·지금수, 1995; 김화자·윤종희, 1991; 오경희, 1997; 이경애·조병은, 1994 등). 주로 관련된 변수들은

연령, 교육수준, 수입, 결혼기간(가족생활주기), 결혼 형태, 주부의 취업유무 등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 성, 의사소통, 동질감, 역할 기대, 역할 평가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요인과 의견일치, 성역할 태도, 자아개념 등의 사회 심리적 요인도 결혼 만족도와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정지숙, 1993). Burr(1979)는 만족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 견지에서 보았는데 그 중 하나는 만족이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의 정도라는 견지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결혼 만족도는 태도적 혹은 주관적 측정이라기 보다는 기대와 실제로 받은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이다. Lenthall(1977)도 결혼 만족도를 '개인의 기대와 결혼의 결과 사이의 비교'라고 정의하였다(강희정, 1995 재인용). 이와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기대와 신념은 결혼 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며, 특히 성장 할 때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신화(myth)나 기대감 등이 클수록 현실적인 결혼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은 Epstein과 Eidelson(1981)에 의해 강조되었고, 이들이 개발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를 사용하여 결혼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연구해본 결과 배우자 변화가능성에 대한 영역과 의사소통 불일치에 대한 영역에서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ones와 Stanton(1988)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불일치 영역이 결혼 불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의 관계를 살펴보다 이들의 연관성을 알아내고 그 결과가 결혼 만족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부부간 차이

결혼과 가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혼을 만들어 가는 부부관계일 것이다.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자가 결혼이라는 의식 또는 제도로 관계를 맺게된 비혈연적이기는 하나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로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관계이다(이성희, 1996). 이러한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될 가장 기본

적인 요인으로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결혼의 개념도 변하며,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 역할이나 결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서로가 갖고 있는 결혼의 개념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지각하지 못한다(권희완, 1992). 서로간의 결혼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결혼 생활에서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Langhorn과 Secord(1955)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갖는 역할 기대가 매우 다름을 발견했다. 여권론적 입장에서 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님이 제기되었는데(권희완, 1992), Bernard(1972)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경험으로 존재하지 않아 기혼 남자가 독신 남자보다 더 심리적으로 건강을 누림에 비하여 기혼 여성은 미혼여성보다 더 심한 우울증과 근심을 경험하고 더 심각한 신경증세를 보이며, 더 낮은 자존심을 보인 것을 근거로 결혼은 남자에게 있어서 좋은 만큼 여자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여성의 결혼(her marriage)"과 "남성의 결혼(his marriage)"의 두 결혼이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것은 곧 결혼에 대한 기대가 부부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실제 결혼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혼만족도, 역할관계, 권력구조, 의사소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좀더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부개념에 관한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이성희(1996)는 부부가 결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 형성의 차이가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인지 결혼함으로써 형성되는 경험상의 차이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미혼 남녀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개념에 대해 연구한 결과 남녀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권희완(1992)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지적 기대가 얼마나 다른가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결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결혼생활 경험 및 인식에 대한 부부간 차이의 이론적 근거를 입증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이지만 미혼 남녀나 결혼 후 확대기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혼

생활의 출발점인 신혼기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결혼 만족도나 결혼 생활에 대하여 부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인 신혼기 부부만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의 차이와 결혼 만족도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4.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 신념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신혼기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3)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 만족도는 관계가 있는가?
- 4) 부부간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에 따라 결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지역 거주자 110쌍, 서울 지역 거주자 50쌍, 기타 지역 거주자 20쌍 등 신혼기 부부 180쌍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혼기 부부의 범위는 결혼 직후부터 첫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의 부부로 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각기 작성하였으나 내용의 구성은 동일하다. 조사는 2000년 9월 10일부터 2000년 10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동시 표집이 어려운 관계로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남녀 각 180부씩 총 3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 266부 중 부부 중 한쪽만 기입하거나 응답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지를 제외한 242부(121쌍)가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

변인	집 단	N(%)	변인	집 단	N(%)
남편 연령	28세 미만	33(27.3)	부인 연령	26세 미만	43(35.8)
	29~30세 미만	49(40.5)		27~28세 미만	41(34.2)
	31세 이상	39(32.2)		29세 이상	36(30.0)
남편 학력	고 졸	16(13.2)	부인 학력	고 졸	25(20.8)
	대 졸	105(86.8)		대 졸	95(79.2)
남편 직업	단순직	23(19.0)	부인 직업	유 무	80(66.1)
	중급직	49(40.5)			41(33.9)
	전문직	49(40.5)			
남편 종교	천주교	10(9.5)	부인 종교	천주교	15(13.8)
	기독교	49(46.7)		기독교	56(51.4)
	불 교	11(10.5)		불 교	8(7.3)
	무 교	35(33.3)		무 교	30(27.5)
소득	150만원미만	26(25.2)	결혼 유형	연애	92(77.3)
	150~250만원 미만	49(47.6)		중매	8(6.7)
	250만원이상	2(27.2)		철충형	19(16.0)
교제 기간	1년 미만	35(29.9)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27(22.9)
	1~3년 미만	33(28.2)		6~18개월 미만	58(49.1)
	3년 이상	49(41.9)		18개월 이상	33(28.0)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아내가 27.4세, 남편이 29.8세였으며 분포를 살펴보면 아내의 경우 26세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7~28세가 34.2%, 29세 이상이 30%로 결혼 연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남편의 연령은 29~30세 미만이 40.5%로 가장 많았고 31세 이상이 32.2%, 28세 미만이 27.3%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자가 아내의 경우 79.2%이고 남편의 경우 86.8%로 대부분 대학 교육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아내는 66.1%가 직업을 갖고 있으며 33.9%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단순직에 종사하는 경우 19%, 중급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동일하게 40.5%로 나타났다. 종교는 아내의 경우 72.5%, 남편의 경우 66.7%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아내의 27.5%, 남편의 33.3%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250만원 미만이 47.6%로 나타나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230만원(통계청, 200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혼유형을 보면 연애결혼의 형태가 77.3%로 중매 형태(6.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연애 결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기간은 3년 이상 교제하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나 비교적 오랜 시간의 교제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결혼 기간은 16.6개월이었으며, 6개월 미만이 22.9%, 6~18개월 미만이 49.1%, 18개월 이상이 28.0%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1) 일반적 특성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 만족도가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특성으로 부부 각자의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소득 등을 조사하였고, 부부 공통으로 교제기간, 결혼유형, 결혼기간을 조사하였다. 남편의 직업은 생산·노무직과 서비스 판매직을 묶어 단순직으로, 자영업과 사무직을 묶어 중급직으로, 전문·경영 관리직을 전문직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내의 경우에는 직업의 유·무로 분류하였다.

2) 비합리적 신념 척도

Eidelson과 Epstein(1981)이 결혼관계에 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사정하도록 개발한 관계 신념 척도(Relationship Beliefs Inventory : RBI) 40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RBI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하위척도에 있는 문항 중 부정적인 문항은 recoding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은 의견 불일치 영역(disagreement is destructive) 8문항, 마음 알아주기 영역(mindreading is expected) 8문항, 배우자의 변화 가능성 영역(partners can not change) 8문항, 성적인 완벽주의 영역(sexual perfectionism) 8문항, 성고정관념 영역(sexes are different) 8문항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큰 것을 나타내도록 점수화 하였다. 또한 부부간 비합리적인 신념의 차이에 따른 결혼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아내의 신념에서 남편의 신념 점수를 뺀 절대값의 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이 점수차가 클수록 부부간의 신념의 차이가 클수록 나타낸다. 각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점수차이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결혼 만족도의 각 영역과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신뢰도는 아내의 경우 Cronbach's $\alpha = .81$ 이었으며 남편의 경우 $\alpha = .71$ 이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3) 결혼만족도

Roach, Frazier와 Bowden(1981)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 : M.S.S.)의 문항을 노명희와 이숙(1991)이 문항을 수정하여 애정적 부부관계 영역 20문항, 결혼에 대한 적응 영역 7문항,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영역 7문항, 권위적인 부부관계 영역 6문항 등 4개 하위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것을 강희정(1995)의 연구에서 사용하여 $\alpha = .95$ 로 신뢰성이 검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도 이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며 질문 문항에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부정적인 표현의 경우는 점수를 반대로 배정하여 평가하였다. 40문항의 총합으로 결혼만족도 점수를 나타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각 하위 영역에서도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결혼 적응을 잘 하고 결혼생활에 불만족하지 않으며 권위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신뢰도 산출 결과는 다음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비합리적 신념 하위영역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1. 의견불일치	.65	.76	1. 애정적 부부관계	.93	.93
2. 마음 알아주기	.61	.66	2. 결혼에 대한 적응	.84	.85
3. 배우자 변화가능성	.67	.74	3. 결혼생활 불만족	.83	.87
4. 성적완벽주의	.50	.60	4. 권위적 부부관계	.62	.74
5. 성고정관념	.61	.54			
전 체	.71	.81	전 체	.95	.96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사용하였고 부부간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t 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리고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인 신념의 차이와 결혼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예비분석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차원에서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일차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t-test와 F검증,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내의 경우 학력이 비합리적 신념의 세 번째 영역인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에서 고졸집단(M=2.61, SD=.58)과 대졸집단(M=2.35, SD=.52)간에 유의한 차이(t=4.54,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변화 할 수 없다고 믿는 비합리적 신념은 고졸집단이 대졸집단의 아내들보다 더 높았다. 남편의 경우 직업과 종교, 소득에 따라 비합리적인 신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직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중급직인 집단과 단순직, 전문직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영역인 의견 불일치 영역과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 성적 완벽주의 영역에서도 중급직 집단과 단순직, 전문적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생산, 노무직의 단순직이나 경영, 관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보다 사무직이나 자영업과 같은 일반적 중급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에서 불교나 무교인 경우가 비합리적 신념이 크고 성적 완벽주의 영역에서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표 3〉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비합리적신념

							M(SD)
변인	집단	의견 불일치	마음알아 주기	배우자 변화 가능성	성적 완벽주의	성고정 관념	전체
직업	단순직	2.48(.54)B	3.23(.54)	2.02(.46)A	2.96(.41)A	2.50(.87)A	2.62(.27)A
	중급직	2.70(.57)A	3.25(.43)	2.32(.51)B	3.23(.41)B	3.01(.99)B	2.86(.26)B
	전문직	2.43(.52)B	3.14(.45)	2.10(.38)A	3.01(.45)A	2.95(1.11)A	2.67(.26)A
	F	3.06*	.70	4.66**	4.60**	2.10	7.91***
종교	천주교	2.71(.48)	3.32(.40)	2.15(.45)	3.29(.62)AB	2.85(1.11)	2.84(.27)
	기독교	2.47(.52)	3.22(.49)	2.04(.34)	2.98(.46) A	2.81(1.09)	2.67(.25)
	불교	2.76(.55)	3.24(.33)	2.35(.52)	3.38(.36) B	3.00(.97)	2.87(.24)
	무교	2.56(.62)	3.09(.51)	2.30(.55)	3.09(.37) B	2.89(1.02)	2.73(.33)
	F	1.17	.78	3.01*	2.88**	.10	1.98
소득	150 미만	2.33(.50)	3.07(.53)	2.04(.44)A	3.05(3.05)	2.67(1.09)A	2.61(.25)A
	150~250 미만	2.56(.51)	3.27(.45)	2.14(.44)AB	3.10(3.10)	2.84(1.06)AB	2.73(.27)AB
	250 이상	2.56(.49)	3.19(.30)	2.29(.45)B	3.13(3.13)	3.24(.87)B	2.79(.26)B
	F	1.90	1.68	2.03	.20	2.24	3.37*

*p<.05 **p<.01 ***p<.001

었는데 소득이 많은 집단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분석 결과

1)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인 신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차이 영역을 제외한 전체적인 영역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차이는 다음 〈표 4〉에 제시되어있다.

〈표 4〉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

하위영역	M(SD)		
	아내	남편	t값
1. 의견불일치	2.73(.59)	2.56(.56)	2.89**
2. 마음알아주기	3.39(.53)	3.20(.46)	3.09**
3. 배우자변화 가능성	2.39(.54)	2.17(.46)	3.65***
4. 성적완벽주의	2.82(.50)	3.10(.43)	-4.32***
5. 성고정관념	2.96(.96)	2.89(1.03)	.62
전체	2.85(.34)	2.73(.28)	3.14**

*p<.05 **p<.01 ***p<.001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의견불일치 영역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부부간에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며 불일치는 나쁘다는 신념이 남편보다 아내가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알아주기 영역에서도 부부간에 유의차가 있었으며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신념이 남편보다 아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변화 가능성 영역에서도 유의차가 있어서 배우자는 변화 될 수 없다는 신념이 남편보다 아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완벽주의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남편의 비합리적 신념이 아내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특성으로 인해 부부간의 성은 항상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성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언제나 아내를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성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신혼 부부로서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관계를 맺고있는 시기이므로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신념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비합리적 신념의 부부간 차이 분석 결과 아내가 남편보다 비합리적인 신념이 전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신혼기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의 차이

신혼기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애정적 부부관계 영역을 제외한 전체적인 영역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있다.

〈표 5〉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차이

하위영역	M(SD)		
	아 내	남 편	t값
1. 애정적 부부관계	3.91(.57)	3.95(.53)	- .89
2. 결혼에 대한 적응	3.62(.67)	3.91(.58)	-4.25***
3. 결혼생활불만족	3.82(.69)	3.99(.54)	-2.51*
4. 권위적 부부관계	3.75(.66)	3.62(.54)	2.12*
전 체	3.83(.47)	3.89(.47)	1.36***

*p<.05 **p<.01 ***p<.001

결혼에 대한 적응 영역과 결혼 생활 불만족 영역에서도 남편이 더 결혼 생활에 적응을 잘한다고 지각하여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편이 더 부부생활에 대한 불만이 적다고 한 권희완(199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아내의 경우 남편보다 권위적이지 않음을 나타냈다. 전체적인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도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부인보다는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에서 부인보다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정지숙(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3)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비합리적인 신념과 결혼 만족도간에 아내와 남편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차이는 다음 〈표 6〉에 제시되어있다.

〈표 6〉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구 분		비 합 리 적 신 념						
		의견 불일치	마음알 아주기	배우자변 화가능성	성적 완벽	성고정 관념	전 체	
결 혼 만 족 도	아 내	애정적부부관계	-.47***	-.12	-.67***	.06	-.13	-.46***
		결혼에대한적응	-.33***	-.02	-.57***	.04	-.02	-.33***
		결혼생활불만족	-.45***	-.19*	-.63***	-.04	-.07	-.49***
		권위적부부관계	-.52***	-.27**	-.51***	-.02	-.11	-.49***
		전 체	-.49***	-.17	-.67***	.04	-.10	-.49***
남 편	남 편	애정적부부관계	-.45***	.03	-.55***	.03	-.21*	-.38***
		결혼에대한적응	-.40***	.05	-.48***	.05	-.16	-.32***
		결혼생활불만족	-.46***	-.14	-.55***	.03	-.16	-.42***
		권위적부부관계	-.39***	-.05	-.36***	-.00	-.18	-.35***
		전 체	-.48***	.00	-.57***	.01	-.23*	-.42***

*p<.05 **p<.01 ***p<.001

먼저 아내의 경우 비합리적인 신념과 결혼 만족도 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영역 중 의견 불일치는 나쁘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는 비합리적 신념이 커질수록 결혼 생활에 불만족하고 권위적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에도 비합리적인 신념과 결혼 만족도 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영역 중 의견 불일치가 파괴적이고 배우자가 변화할 수 없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내의 경우와 일치 하지만 성별 차이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클수록 애정적 부부관계가 감소하고 전체적인 결혼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사소통 불일치 영역과 배우자 변화 가능성 영역에서 결혼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Eidelson과 Epstein(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4) 부부간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에 따른 결혼 만족도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부부 모두 비합리적인 신념의 전체적인 차이와 결혼 만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 〈표 7〉에 제시되어있다.

〈표 7〉 부부간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와 결혼 만족도

구 분	부부간 신념차	결혼 만족도 영역					
		애정적 부부관계	결혼에 대한적응	결혼생활 불만족	권위적 부부관계	전체	
							낮음
비 합 리 적 신 념 전 체 영 역	아 내	낮음	4.05(.47)A	3.80(.66)	4.02(.61)A	3.94(.58)A	3.99(.50)A
		중간	3.76(.45)B	3.50(.49)	3.66(.53)B	3.57(.58)B	3.67(.41)B
		높음	3.77(.59)B	3.44(.75)	3.64(.66)B	3.63(.70)AB	3.66(.59)B
		F값	3.03*	2.72 [†]	3.81*	2.97*	4.01*
		남 편	낮음	4.14(.55)A	4.03(.66)	4.21(.50)	3.79(.47)A
중간	3.78(.39)B	3.81(.50)	3.93(.42)	3.56(.40)AB	3.78(.36)B		
높음	3.96(.43)AB	3.93(.52)	3.96(.56)	3.47(.57)B	3.90(.41)AB		
F값	4.05*	1.07	2.85 [†]	3.70*	3.46*		

[†]p<.10 *p≤.05 **p<.01 ***p<.001

낮은집단≤M-1SD, M-1SD<중간집단(M+1SD, M+1SD≥높은집단

아내의 경우 남편과 전체적인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가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중간이거나 크다고 인식한 집단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부간에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적게 인식하는 집단이 부부간에 차이를 중간 이상으로 느끼는 집단보다 애정적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도 적고 권위적이지 않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적응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영역에서 아내와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적게 느끼고 있을 때 결혼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내와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적게 인식한 집단이 부부간의 차이를 중간 이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애정적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권위적이지 않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불만족에 대한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결혼에 대한 적응 영역에서는 아내와의 비합리적인 신념차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의 구조가 평등하지 않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해 실제 결혼 생활에서도 여자보다 남자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권희완(1992)의 연구와 연관이 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기 부부 242명을 눈덩이 표집법에 의해 선별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직접 전달 및 회수하는 방법과 우편, E-mail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고정관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편보다 아내들의 비합리적 신념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Bernard(1972) 등이 제시

한 결혼 생활 경험과 인식에 대한 부부간 차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결혼 당사자인 남녀가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결혼 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혼 예비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혼기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 부부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 즉 결혼에 대한 적응 영역, 결혼생활 불만족 영역, 권위적 부부관계 영역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결혼 만족도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결혼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사실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권희완, 1992).

셋째,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결혼 만족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 만족도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신수련(199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결혼 전까지 독립된 생활을 해온 두 남녀가 결합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의 욕구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행복만을 추구하기 보다 서로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결혼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결혼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기대에 비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종교 활동이나 취미 생활 등을 개발하고 여성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결혼 생활에도 긍정적인 활력 요소가 될 것이다.

넷째, 신혼기 부부간의 비합리적인 신념의 차이에 따라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내와 남편 모두 부부간에 비합리적인 신념의 차이가 큰 집단이 신념의 차이가 적은 집단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 중에서 부부의 학력과 직업, 소득, 종교 등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부부의 결혼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과 결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논의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으며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점을 제안한다면 첫째,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혼 준비 교육을 일반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효율적으로 결혼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Sharp와 Ganong(2000)이 비합리적 신념에 관한 교육 실시 후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적 신념을 줄이는데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일부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설강되고 있는 결혼과 가족 과목이나 가정학, 가족학 등의 과목에 남녀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교과 내용을 구성하여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결혼의 기대감 등에 대해 미리 학습시킨다면 실제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게 될 갈등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비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적응 프로그램을 종교나 민간 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결혼 초기에 부부간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많은 갈등 상황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결혼생활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희정(1995). 도시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고현선, 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 대처 유형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13
3.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4. 김금옥(1998). 부부의 성역할 성향과 의사소통도 및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정옥(1998). 합리적-정서적 접근(RET) 부부상담 프로그램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화자, 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결혼 만족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7. 노명희, 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성취 동기간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8. 신수련(1993). 부부관계와 의사소통 및 비합리적 사고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오경희(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0. 윤순임의 14인(1998). *현대 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1. 이광자(1992). 결혼초 부부관계의 적응.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12. 이경애·조병은(1994). 도시부부의 배우자 선택 요인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 교환 이론적 관점에서. *대한가정학회지* 32(2): 1-15
13. 이상원(1993). 결혼초기 부부의 부모와의 유대관계 및 결혼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성희(1996). 미혼남녀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개념의 성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83-102
15. 이정덕외 4인(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16. 임승탁(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 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17. 전춘애·박성연(1993).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1-19
18. 정지숙(1993). 부부의 성역할 태도,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통계청(2000). *사회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 통계청(1998). *사회인구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1. 유영주·이정연·오윤자(1998). *가족생활교육-이론 및 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편. 서울: 하우
22. 허윤정(1997).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 12 한국가정과학회지 3(2) : 27~38, 2000
Korean J. of Human Ecology 3(2) : 27~38, 2000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홍보선(1993).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의사결정 유형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Arias, I., Beach, S.R.H.(1987).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in the context of marriage. In K. Daniel O'Leary(ed.) *Assessment of marital discord*. Lawrence earbaum associattes. Publishers, New York
25. Bernard, J.(1972). His and her marriages. Henslin, J.M.(ed.). *Marriage and family in changing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26. Doherty, W.J.(1981). Cognitive processes in intimacy conflict II: Efficacy and learned helplessnes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35-44
27. Eidelson, R.J., Epstein, N.(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ent of measure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5): 715-720
28. Eidelson, R.J., Epstein, N.(1981). Unrealistic beliefs of clinical couples: Their relationship to expectations, goals, and satisfac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4): 13-22
29. Ellis, A.(1977). The nature of disturbed marital interactions. In Ellis, A. and R. Grieger, *Handbook of rational emotive therapy*. New York, Springer
30. Grafton N. M.(1980). Marital expectations of satisfied and dissatisfied couple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40. 5321A
31. Gottman, J., Notarius, C., Gonso, J., Markman, H. (1976). *A Couples guide to communication*. Champaign, III, Research Press.
32. Hurvitz, N.(1970). Interaction hypotheses in marriage counseling. *The Family Coordinator*. 19: 64-75
33. Jacobson, N.S., Margolin, G.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34. Jones, M.e., Stantion, A.L.(1988). Dysfunctional beliefs, belief similarity, and marital distress: A comparison of model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1): 1-14
35. Langhorne, M.C., Secord, P. F.(1955). Variations in marital needs with age, sex, marital status, and regional loc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
36. Lederer, W.J., Jackson, D. D(1968). *The mirages of marriage*. New York, Norton
37. Lenthall, G.(1977).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Counselling*
38. Ort, R.S.(1950) A study of role conflicts as related to happiness in marria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5: 691-699
39. Rice, P.F.(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Inc.
40. Rorer, L.G.(1989). Rational-emotive therapy: An integrated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ba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5): 475-492
41. Satir, V.(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
42. Sharp, E.A., Ganong, L.H.(2000). Raising awareness about marital expectation: Are unrealistic beliefs changed by integrative teaching? *Family Relations*. 49(1): 71-76